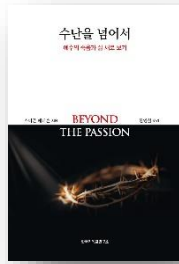


## 설교 복기 “가난한 자의 하나님”



책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난을 넘어서** 당연히 예수님의 수난을 가리키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전승이 되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누가 처음부터 작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지 기록해 놔야지 역사에서 중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서 공동체 안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됐어요. 그걸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 전승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어져 온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형성된 전승이 이 수난전승이에요. 수난. 이게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하는 수난당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난전승은 네 복음서가 다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수난전승에서는 다 공통돼요. 요 제목이 이 책의 제목이 그런 겁니다. 수난을 넘어서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연구소예요. 우리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가끔 책을 자기네 출판사에서 출판했다 그래서 계속 올리는 출판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한국 기독교 연구소인데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분이 감리교 교수였었는데 그때 뭐 학교에서 뭐 가르치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실격됐어요. 그건 아마 이름도 내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예수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기적에 대한 거를 실제 기적이 아니다. 아니라 뭐 어떤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 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교수직을 이제 박탈당했죠. 그 분이 시작을 해서 이 출판사를 근데 좀 하다가 또 다음목사에게 넘겨주는 데, 그분도 이제 다 실력자들인 데, 또 기장, 감리교에서 또 치리받고. 좋은 책들 많이 냅니다.

여기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주로 그 예수 세미나 계통의 책들이에요. 역사적 예수를 찾아가는 하나의 학파예요.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그 출판사에서 우리 대구성서아카데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자기 출판 나온 거 올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끔 제가 괜찮다 싶은 거는 삽니다. 요거도 내용은 모르고 그 소개 글 보고 사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부제로 이렇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삶 새로 보기** 예수의 죽음과 삶 새로 보기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도그마로 남아 있습니다. 교리로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넘어설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 그거를 이제 예수의 삶에서 조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삶과 분리된 십자가가 뭐 구속의 의미 뭐 대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

가 주셨고 우리 용서하시고 그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뭐 등등의 많은 교리들이 예수의 삶과 이렇게 따로 나와서 하나의 그 도그마로 있으면 안된다 얘기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다 예수의 삶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다는 읽지 못하고 4분의 3 정도 읽었는데 새로운 시각을 많이 얻었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드립니다.

시편에는 막말이 많이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망하게 하소서 뭐 원수 갚아 달라 이게 웬만해서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 원수도 사랑해야지 왜 이렇게 저주 섞인 말들을 막 내뱉을까 하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언어와 그 태도와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배경에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지나칠 정도로, 결벽증에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근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하는 말 망하게 해 달라고 하는 말은 정말 저놈들이 미워서라기보다, 그런 것도 있긴 있겠으나, 억울한 마음도 있긴 있겠으나 더 핵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에 의해 영혼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 못합니다. 점잖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교양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시편을 읽으시라고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못해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선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 혁명과 그리고 세계에서 제1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예를 이해로 들었습니다. 이게 경험이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 이거는 정말 나쁜 거야 잘못해서 우리 자본주의 승리했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딱 머릿속에 이제 박혀 버리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공산주의가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가능한 겁니다. 그 서로 니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서로 다 재산을 팔아서 같이 가져와서 같이 먹고 살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론이죠.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이게 아주 고상한 이론인데 그게 실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전 낙관론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공산주의를 했던 사람, 막스를 비롯해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인간이 열심히 해서 좋은 유토피아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역사 발전해서, 헤겔이 말한, 쪽쪽쪽 발전해서 자본주의의 끝에 가게 되면 망하게 되고 결국 무산자의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절대적인 평화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인제 못 본 게 하나 있죠. 인간이 그럴 능력이 없는데 인간에 대

한 낙관론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나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그 공산당의 관료주의가 계속 그게 잘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는데 실패하지 않아야 인류 역사에서 오히려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것도 아 정말 무지하게 교회가 큼니다. 지금은 조금 그 영향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한창 잘 나갈 때는 70만 80만 명 지금 된다고 했잖아요 세계에서 제1 큰 교회이고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1 큰 교회 50 개를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한 30 개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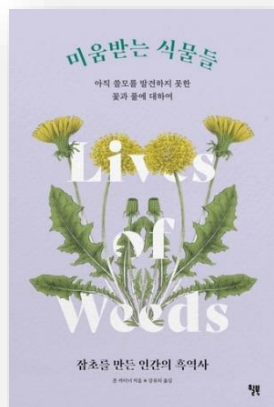


순복음 교회의 3 박자 축복 신약성경 어디에 근거했죠. 아시는 분 계시죠. 요한삼서 어딘가 뭐 있죠. 건강해서 몸, 몸, 물질 어떤 영혼까지 다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저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불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진보적인 교회는 기장인데 기장 뭐 별로 한국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모르지만, 아마 미래에 조금 더 어떤 평가가 돼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별로 성공 적이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뭐 이런 설교를 한 두번 하지 않았겠죠. 근데 설교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 진다는 게 참 목사로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알았던 내용인데 처음 느끼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그것을 살피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그 성경의 언어와 개념들은 정말 인간과 역사를 가장 심층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뭘 지를 그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책 이름이 뭔가? 잡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잡초, 제목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잡초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 요 관점이 있습니다. 잡초란 뭐냐? 잡초란 아직 그 쓸모가 발견되지 않은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잡초를 딱 규정해 버리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로 해버리는데 그 잡초학을 연구한 그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아직 우리가 왜 쓸모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뿐이지 어 정말 없어야 될 잡초는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긴 있는데 그렇게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잡아주니까 이 아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공부를 못했어. 아니면 장애야 뭐 못 살아 이런 자꾸 우리는 그런 걸로 머릿속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구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건 아니죠. 근데 며느리를 구하거나 사위를 구할 때 이 사람이 직업이 뭐야 그리고 연봉이 얼마야 계속 이제 우리 머릿속에 그게 작동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교양이 있으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제 계속 그렇게 돼요. 우리 딸 우리 혹은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아 애네들 앞으로 뭔가 좀 바탕에 있어야 하는데 왜 저러지 어쩔지 그걸 평가를 계속 합니다.

그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고. 잡초 얘기를 한다면 아직 쓸모를 우리가 모르는 음 그 사람이다 우리가 아직 그 깊이를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관계에서 그렇게 살기 쉽지는 않아요 상대방의 나쁜 거만 보여. 부부도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발걸음이 빠르지? 같이 걸어가면 왜 저 사람 저렇게 천천히 오지? 나는 좀 빨리 와요. 뒤에서는. 2000년도에 1년 동안 유럽에 가서 여행 다니면서 저 사람 고생 많이 했을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길을 미리 알아서 길 찾고 뭐 준비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뒤만 따라오니까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빨리 가지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개인 얘기를 해서 뭐 미안합니다만은 아직 모르는 게 많지 내가 저 사람에게요. 이게 내 주관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아 왜 저렇게 책을 좀 더 읽어야 되는 게 아닐지 아 왜 저 재미없는 프로그램에 저걸 보지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내려 놓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조금 더 그렇게 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정되는 일들, 자살률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높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 제가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분신하는 일이 일어나네요. 아 그게 정말 절박해서 이것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아주 모르는 그 노동의 문제여서 그런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심리적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지. 지금 뭐 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러다 판단하기 힘들데 꽤 다 하나님이 항상 이 부정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일도 벌어

지잖아요. 참 끔찍하죠. 그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어린아이 자기 자식이라고 가족이 다 이렇게 죽는 일 있잖아요 그 주로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하더라구요 죽으려면 뭐 혼자 죽음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내와 자식까지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뭐 10 년에 한 번쯤 일어나면 뭐 인간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라든지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종종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다 모르지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정되는 이러한 일들을 고쳐 나가는 그런 정치 뭐 경제 사회 뭐 그런 움직임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일어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개심한 것은 이유는 뭐 다른거 없습니다. 경쟁 중심사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돌진 근대 주의가 한국인들의 멘탈을 이렇게 갇아먹고 있다고 분석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돌진근대주의요. 그 군사 독재와 더불어서 왜 경제가 너무 빨리 발전해 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그 이게, 이 부라고 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졸부가 되든지 뭐 망하듯이 전부 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쳐지게 되고 수출 많이 하고 하여튼 생산성 높이고 이런 대로 떨어 지니까 개개인이 그것을 버텨내지 못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 후반부에,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 알거지가 된다** 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의롭다고 한다고 말씀 앞에서 드리면 뒤에서 사족 같이 하나 붙였어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는 의인입니다. 개개인으로 본다면 조금 유지할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죠. 부도덕할 수도 있지만 그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세상과 그 제도를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탁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거지가 된다. 죽는 순간이죠. 살아 있을 때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죽는 순간에는 완전히 알거지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죽음이 하나님 심판의 가장 결정적인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다 생각을 해요.

뭐 다 아시는 대로 이게 뭐 좀 잔소리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재산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서 죽는 순간마저 차이가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게 되겠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 수록 상실감은 내가 보기엔 더 클 겁니다. 그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털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고독사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자기 혼자만 있는 죽음을 혼자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냥 알거지가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가 마지막 단락에서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최소한의 기준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보장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최소한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백프로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면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으니 일용할 양식 말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소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산수 계산으로 나오더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최소한도 일용할 양식만 교회에서 갖춰진다면 그 성장을 이렇게 교회가 커야 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안 그렇잖아요. 계속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뜻으로 보면 교회가 미래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갖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게 의식했는지 의식하지 않았는지 여기에는 또한 좀 나쁜 뜻으로 하나의 음모론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계속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신자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이런 행사하고 저런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좀 뒤쳐지면 안 되니까 인정받으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열심을 되게 되거든요. 목회 하나의 방법, 노하우, 기술로서의 목회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효과적인 거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입니다.

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북 긴장 좀 완화하고 세금을 돈 있는 사람들에게서 좀 더 걷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이게 너무 관념적인 생각인가요? 비현실적인 생각인가요? 아 그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또 받쳐 주지 않으니깐 안되더라구요.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이 조금 브레이크를 걸면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김대중도 포함해서. 남북관계 이 문제를 푸는 게 우리 민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적대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이걸 또 엉키게 만들잖아요. 현재 윤석열 정권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한국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공격적이고 어 그 수구 반동적이면서 냉전적 사고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맘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동이 걸리겠죠 어떻게 서라도. 어쨌든 걱정은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 뛰어난 정치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각,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는 것은 분명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정권도 연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벌어졌던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고해서  
아쉽게 됐습니다. 이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교육에서도 그  
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이 복지 문제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 한 게 아닐까 생  
각이 들어요.

설교 보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